

일자리 · 혁신성장 소득 3만불 시대 연다

정부, 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올해 2.2만명 → 2.3만명 확대 계획

정부가 내년에 혁신성장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3만불 시대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결핵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가 새정부 출범 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었던 내년에는 사업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변화 창출로 3만불 시대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경제속도를 증대하고, 공정경제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 50%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일자리예산 34.5%를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3만명이 상으로 늘리고 전체 53%를 상반기에 채용토록 했다.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에 비해 2만5000명 확대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 기관 중심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사회보험 지원하는 두부누리사업 대상 기준을 월 14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을 올해 249개에서 내년에는 1000개로 대폭 확대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고용창출시 상시 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장애인 1인당 300만~1000만원까지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가칭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고용정책이 마련되고, 항공전문인력, 글로벌현장학습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청년 우대선발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73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사업과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해외동반진출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공휴일 제도 개선, 연차 휴가 활성화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가 활동을 촉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시행된다.

실업, 주석, 어린이날 이외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가저축제(3년내 연차휴가 사용)를 활성화하고,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이들에 연차일수 차감없이 최대 11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도에는 공공주택 1만호가 공급되고, 다답풀대출 지원규모를 올해 7.6조원에서 내년 9.8조원으로 늘려 청년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노후공공청사 2만호, 대규모 유류국유지 개발 1만호 등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짓는다.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세어하우스 등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73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사업과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내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2조 586억원)이 국고지원으로 이뤄지며,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고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핀테크, 드론 등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선도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확립,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핵심인력 4만6000명을 양성한다.

33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운용해 2022년까지 시범 스마트공장 50개를 건설하고,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 드론 실증 인프라구축,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도 확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업·식품·스마트팜 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5년간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해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추진방안을 1월중 마련하고, 국제·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



한은, 온라인 경제교육 콘텐츠 신규 제작

한국은행은 온라인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온라인 경제교육 콘텐츠를 28일부터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제교육 콘텐츠는 종합구성물 콘텐츠 2편과 e-Learning 콘텐츠 4편 등 총 6편으로 구성됐다.

종합구성물 콘텐츠에는 종합다큐멘터리 방식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인재무설계'와 스타(방송인 김성민) 강연 방식의 '어서 와, 경제교육은 처음이지?-자녀를 위한 경제교육' 등이 있다. 사회초년생이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가 대상이다.

e-Learning 콘텐츠는 ▲한은 경제연구원 환인도 과장의 '행태경제학의 이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서형원 부장의 '개인 신용·부채관리의 이해'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성환 소장의 '은퇴설계와 자산관리'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고재현 연구위원의 '고령화와 주택금융' 등으로 구성됐다.

한은은 "일반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다 용이하고 편리하게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디어를 활용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

'올해의 헤어스타일' 공개

카카오헤어샵, 여성 레이어드컷 · 남성 내추럴 펌 등

카카오는 카카오헤어샵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의 헤어스타일'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27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카카오헤어샵을 이용한 약 200만명의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헤어샵 이용자들이 올해 가장 선호한 헤어스타일은 여성은 '레이어드컷', 'C컷', '에쉬브라운 컬러 염색'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내추럴 펌', '투블러컷', '초코브라운 컬러 염색'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헤어샵은 올 한해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베스트 스타일과 지역별 인기 스타일, 인기 디자이너 등 다양한 주제별 순위를 공개했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예약



을 기록하며 인기가 급상승한 올해의 핫스타일에는 여성은 '러블리 펌', '올브레 염색', '히피펌'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가르마 펌', '리전트 펌', '댄디컷'이 차지했다.

카카오헤어샵 이용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앞서 커트 비용 500원부터 신부용 웨딩 헤어 비용 99만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뉴스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첫걸음기업' 배정

내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약 1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첫걸음기업'에 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계획을 27일 통합공고했다.

지원사업에 따르면 내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용자 1조6025억원, 보조 881억원 등 총 1조6886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우선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포인트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이나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이다.

또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서 '소공인 특화자금' (4500억원) 대출 심사시 가점 5점을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도 우대해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달 공고하는 배정 한도 내에서만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 선정시 최대 5점의 가점을 주고 소공인사업 지원시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첫걸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6000억원의 80%인 1조2800억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하기로 하고 첫걸음기업이 우대받도록 목표비율 80%로 지원 목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뉴스

직장인 31% "가상화폐 투자"

응답자 80.3%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 봤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투자금액은 56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 이유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어서'가 54.2%(복수응답)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47.8%),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 같아서' (30.8%), '투자 방법이 쉬워서' (25.4%) 등의 응답이 있었다.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14.6%)와 같은 이유도 나왔다.

평균 투자금액은 566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100만원 미만' (44.1%)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8.3%), '1000만원 이상' (12.9%),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9.8%),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8%)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로 이익을 봤느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80.3%에 달했다. '원금유지'는 13.2%, '손실을 봤다'는 6.4%에 그쳤다.

투자 이익은 '약 10%' (21.1%)가 가장 많았으나 가상화폐 시세의 가파른 상승세로 '100% 이상' (19.4%) 이익을 본 응답자도 상당했다. 이어 '약 20% 이익' (16.5%), '약 30% 이익' (12.2%), '약 50% 이익' (11.8%), '약 90% 이익' (7.6%) 등이었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생긴 증상이나 습관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자주 확인한다' (39.7%)가 1위였다.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 (27.5%), '수익률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하다' (22.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카더라 통신에 민감해졌다' (14.2%), '24시간 거래 확인을 위해 잠을 거의 못 잔다' (11.9%), '수익 이상의 돈을 투자금액으로 활용한다' (10.8%) 등의 응답도 나왔다.

한편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은 이들은 '지금이라도 투자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2%가 '여전히 투자 의향 없다'고 응답했다. /뉴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